

오싹한 공포... 숨막히는 스릴러

올 여름 공포·추리소설 뜬다



여름철 TV의 특징 프로그램 중 빠지지 않는 것이 '납량(納涼)특집'이다. 영화에선 공포영화가 여름의 단골이려면 책에는 추리소설이 있다.

'검은집' 등 日 추리소설 강세 영화 개봉 맞춰 소설 출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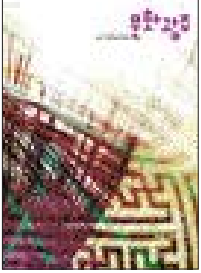
정신분석학자이자 기호학자인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비잔틴 살인사건'(소담), 제목부터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자비네 테슬러의 '아동수집가'(전 2권·창해) 등 국적을 불문한 추리소설의 출간이 계속되고 있다.

미야베 미유키 역시 '나는 지갑이다'(랜덤하우스), '화차'(시아출판사), '이름없는 독'(북스피어) 등으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공포영화 원작 소설> 황정민 주연의 영화 '검은 집'의 원작 소설 '검은 집'(창해) 역시 일본 추리소설 작가인 기시 유스케의 작품.

<추리소설 출간 러시> 7월 들어 매주 4~5종의 추리소설들이 출간되고 있다. 국제스릴러작가협회(International Thriller Writers)가 펴낸 '스릴러'(전 2권·북·북스)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추리작가 제임스 패터슨이 편집한 단편 추리소설 30편이 모인 소설집이다.

'문화 광주' 6호 나와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장 오건택)가 발간하는 주간지 '문화 광주' 6호가 나왔다. 이번 호 특집은 '광주의 문화지도'를 다시 그리자'.



담긴 오색 채소를 소개하며 화제의 영화 '화려한 휴가' 등에 대한 글도 담겨 있다. 문의 062-381-2234.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화폐여행'展

국립광주박물관이 '열 두 사자와 떠나는 화폐여행'전을 9월 2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화폐의 종류와 역사, 화폐의 가치, 화폐디자인 등 3부로 나뉘어 열리며, 화폐를 만들어보는 체험시간도 마련된다.

롤링, 결국 해리포터 살렸다

완결편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도들' 전세계 동시 출간

영국 작가 J.K. 롤링의 해리 포터 시리즈 완결편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도들'(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사진)이 한국 시간으로 21일 오전 8시 전세계에서 동시에 출간됐다.

모든 비밀이 이제 여러분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번 다시 읽어도 '죽음의 성도'는 해리 포터 시리즈 중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6권이 나오는 동안 자신과 함께 한 독자와 마지막 7권의 경험도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내 온라인 서점들은 오전 8시를 기점으로 판매를 시작했으며, 오프라인 서점들은 매장 개장시간인 9시30분에 맞춰 서점 입구 쪽에 별도의 가판대를 마련해놓고 판매에 들어갔다.

책 출간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 시내 주요 도서 매장에는 개점시간부터 예약한 책을 찾아가려는 독자와 책을 구매하려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완결편이 출간됨에 따라 그동안 독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초점이 됐던 주인공의 생사 여부도 속 시원하게 공개됐다.

해리포터 완결편 번역본은 도서출판 '문학수첩'에서 11월께 출시될 예정이다. 번역은 '해리포터' 시리즈 번역 작업에 참여한 최인재씨가 맡았다.

롤링은 완결편이 나오기 직전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여러분은 수 시간 내에 해리, 론, 헤르미온느와 나머지 인물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될 것"이라며 "내가 그렇게 오래 품었던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광주비엔날레 대한 예정이 없어서인지 K씨는 인기 2년동안 정기·임시 이사회 통틀어 2차례만 참석하는 무성의를 보였다. 그러나 1번은 신규 이사회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유령이사'나 다를 바 없었다.

삶의 애환 배어 있는 추억의 먹거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내달 1일까지 '詩와 음식'展

시의 언어로 표현된 추억의 먹거리를 화폭에 옮긴 작품들이 선보인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詩와 음식'전이 다음달 1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단순한 먹거리로서 음식이 아닌 삶의 애환이 배어있는 먹거리를 작가들이 재해석한 작품이 전시된다.



이창훈 작 '초동일(初冬日)'

최정아씨는 누룩이 뜨는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와 끈기를, 송춘복씨는 환민복 시인의 '리면을 먹는 아침'으로 관객들을 만

movies Happy Time 영화야니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엔터시네마

컬럼버스시네마

무등극장

제일시네마